

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의 양상과 변모

식민지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의 식민모국 연구*

김효진

1. 들어가며

문명개화의 시기로 불리는 메이지 시기 초기에 계층에 상관없이 유럽의 문화와 생활, 앞선 과학기술을 동경하고 그것들을 생활과 도시에 도입하려고 했다. … 긴자에 문을 열었던 우유 가게 간판에 페스트 밀크(Pest Milk)라고 쓰여 있거나 서양풍의 머리 모양이 유행하는 이발소가 헤드 커터(Head Cutter)라고 크게 쓰인

김효진(金孝眞)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조교수를 지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오타쿠 문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일본사회의 대중문화 및 젠더 정치학, 한일문화교류와 세계화 속의 문화민족주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女性マンガ研究』(공저, 2015),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201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3.11 동일본대지진과 ‘플루토군’의 부활: 캐릭터의 정치학과 ‘번역’을 중심으로」(2014), 「엔틱 기모노복을 통해 본 기모노의 근대화와 재생」(2011), 「1990년대 이후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명암: 교토 니시진의 사례를 중심으로」(2010)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간판을 내걸었던 것도 이때다. 급속한 서양화의 움직임이었기에 확실한 이해에 기반한 정확한 것과 함께, 보고 배긴 기묘한 서양풍이 여러 분야에 출현했다. 유럽에 대한 오해, 정해, 곡해의 도입- 혼돈스러운 이 문명개화의 시대...¹

조선을 식민지화한 식민모국(colonial motherland)으로서 일본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식민 지배의 영향이 피식민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식민모국에서도 식민 지배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대와 전통이라는 이분법이 서구와 비서구라는 도식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도식에 따르면 일본도 서구와의 조우 속에서 비서구 국가의 하나로 서구(근대)에 대하여 '전통'이라는 범주로 간주되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서구의 식민지가 되는 대신 오히려 여타의 아시아 국가를 식민화하는 식민모국이 되었다.

그 원인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위치가 가져온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본의 근대화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과정이 결코 수월하고 평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근대화의 후발 주자로서, 아시아의 한 국가였던 일본이 개항 이후 단 몇십 년 만에 자신들을 근대화된 국가이자 식민모국,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자로서 스스로를 내세웠던 이면에는 엄청난 모순과 괴리가 있었다. 특히 근대화를 둘러싸고 서구와 여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매개자로서 자신을 위치지을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입장은 미묘하고 불안정한 것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경험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근대 국가로서 일본은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만들어졌는가?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은 어떠

1 藤森照信, 「はじめに」, 藤森照信・内田詳士・時野谷茂・初田亨, 『復元鹿鳴館・ニコライ堂・第一国立銀行』, ユーシープランニング, 1995, 6쪽. 이하 모든 일본어 원문 번역은 필자가 한 것이다.

했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고찰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정책 수행에 항존했던 여러 문제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식민모국 일본의 모순과 갈등을 통하여 한국의 식민지적 상황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식민모국 일본에 대한 서구의 영향, 혹은 일본이 서구와 맺었던 특수한 관계를 식민지적 상황(colonial situation)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개항 이후 일본이 스스로를 서구와 비교하면서² 서구화와 근대화라는 국가적인 목표(‘부국강병’으로 대표되는)를 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서구에 대한 역상으로서 일본의 정체성을 정의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일본의 근대화를 둘러싼 경험 중에서도 ‘근대 건축’ 도입 초기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갈등과 경합, 타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modern)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가는 논란이 많으나, 여기서 논하는 근대 건축은 17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200년 동안의 서양의 건축 양식⁴을 말한다. 특히 근대 건축이 일본의 경관(landscape)에 나타나기 시작한 막부의 개항부터 1900년 이전을 주로 다룬다. 이는 한국에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 평범한 일본인이 ‘문명개화’라는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

2 서구에서 근대가 과연 일률적이고 동질적으로 존재했는가? 근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코마로프와 코마로프(Comaroff & Comaroff)는 식민주의는 일련의 불연속과 모순들 위에 세워졌다고 언급하면서 식민모국이 근대성을 수출하고 모든 타자가 전근대로 설정되었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계선은 매우 불확실했다고 본다. Jean Comaroff & John L. Comaroff,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vol.2-the Dialectics of Modernity on a South African Fronti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이하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으며 비교는 상대적인 것이다.

3 이에 대해 한경구는 “...타 사회를 타 사회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사회는 타 사회와 본질적으로 대조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유럽인이 동양을 자신들의 거울의 역상으로 구성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도 중국을, 그다음에는 서구를 자신들 모습의 역상으로서 구성해온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경구, 「국제화의 레토릭과 문화론」, 『비교문화연구』 3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7, 66쪽.

4 자세한 논의는 피터 콜린스 저, 이정수 옮김,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태림문화사, 1989, xiv쪽을 참조하라.

적 경관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근대 건축을 통해서였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의 건축은 점차 근대 건축의 확장과 수용이라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주로 메이지 시대에 세워진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의 사례를 통해 근대 건축의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근대화의 성격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2. 식민주의에 대한 논의와 근대 건축의 정의

1) 식민주의와 건축의 관계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정치경제학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식민지에서 일어난 문화변동을 간과하거나, 문화 변동을 다루었더라도 식민모국인 일본이 얼마나 교묘하고 완벽하게 식민화를 수행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식민모국’과 ‘식민지’라는 위계 구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주의에 관한 공통적인 연구 성향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들이 거둔 성과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작 식민주의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갈등, 내부적인 혼란과 모호성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더크스(N. Dirks)는 기본적으로 식민 지배는 군대, 경제,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 가능했지만 좀 더 복잡한 문화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근대화와 세계자본주의의 논리로 식민주의의 문화적 효과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자체가 지배를 위한 문화적 계획이었다고 지적한다.⁵ 그러나 이러한 언급 이전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식민주의는 결코 단선적이거나 역사를 통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

5 Nicolas Dirks ed., *Colonialism and Cultur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p.3.

다. 식민주의적 계획에 대해 체계적으로 언급하려는 시도는 식민주의의 근본적인 역사성을 거부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그것의 원인과 효과를 뒤섞게 된다는 것이 더크스의 주장이다. 비록 연관되거나 때때로 협동적이었지만 대부분 섞이고,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때때로 모순적이었던 행위와 결과들에 대해 의도나 체계를 부여하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잘못된 것이다.⁶ 또한, 식민 세력과 피식민자로 엄격하게 나누고, 그것에 ‘근대’와 ‘전통’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식민주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학자 스톨러(Stoler)는 지금까지 식민주의에 대한 논의가 공유된 유럽적 멘탈리티를 상정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식민자들 안에 존재하는 계급, 민족, 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인류학자들이 유럽사회나 그 거울(역상)로서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⁷ 즉, 식민주의나 그 담지자인 유럽인들은 하나의 추상적인 힘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식민모국은 다양하지만 단일하다는 가정이 식민주의에 대한 논의의 폭을 제한했다고 본다. 더크스가 주장하듯이, 식민모국은 태생적으로 단일하거나 필연적으로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식민모국으로서 단일한 유럽은 상상의 집단인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식민지 경험을 고찰할 때 이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즉, 여타의 식민모국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갈등적이었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식민지 연구의 폭이 확대되고, 좀 더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식민화를 다루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건축 환경’(built environment)은 사회과학 및 문화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문화의 총체로서, 건축 환경은 자연 환경 내에서 한 집단이 적응하고 지속되는 특성의 복합체에 통합된 것으로 간주된다.⁸ 이러한 관점

6 Nicolas Dirks ed., *Colonialism and Culture*, p. 5.

7 Ann Stoler, "Rethinking Colonial Categories: European Communities and the Boundaries of Rule," *Colonialism and Cultur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p. 321.

8 Denise L. Lawrence & Setha M. Low,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tial For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9, 1990, p. 454.

에서 진행된 건축과 공간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소규모의 토착사회의 자연 환경과 사회 조직에 따른 전통적인 거주 유형이나 공간 배치에 관심을 가졌으며, 건축과 공간을 그 문화와 질서의 총체로 인식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변화와 복합 사회(complex society)의 건축, 그리고 건축 환경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식민지와 현대의 서구, 제3세계 도시와 건축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 생산으로서 건축 형태’와 관련하여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토착사회의 전통과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건축 환경의 도입과 그로 인한 효과, 혹은 서구 사회 내부의 건축 환경을 둘러싼 변모 등으로 사회사적인 입장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도시의 현상과 제도적인 힘들, 그리고 건축 형태가 존재하는 변화하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이다.”⁹ 이는 앞에서 제기한 가정—근대 건축을 통해 일본 근대사의 양상을 파악하겠다—을 전개하는 데 직접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킹(King)은 건축 형태의 사회사를 주창한 학자로 “건축, 그리고 건축 환경 역시 필연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생산물이다. 건물은 사회적 필요에서 만들어졌으며 경제, 사회, 정치, 종교와 문화적인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크기, 모습, 위치와 형태는 물리적인 요소들(기후, 재료)에 지배될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의 관념, 경제적·사회적 조직의 형태, 재료의 분배와 권위, 그 활동, 믿음과 가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 변동으로서 새로운 건축이 탄생하는 반면, 나머지 건축은 쇠퇴하고 희미해진다고 한다. 사회는 사회적 형태를 유지하거나 재강화하는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이다.¹⁰

나아가 킹은 “식민주의 건축은 근대 세계체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통찰

9 Denise L. Lawrence & Setha M. Low,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tial Form,” p. 482.

10 Denise L. Lawrence & Setha M. Low,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tial Form,” p. 486.

을 제공한다. 현대의 전 지구적 도시체계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식민주의의 부분으로 소개된 건축과 도시 형태의 다양한 조합에 포함되고, 상징되고, 통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주의의 건축 환경은 생산물이자 생산자로 기능한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을 정의하고, 노동을 창조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표상하고, 새로운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 관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분석한다.¹¹

2) 근대 건축의 개념과 연구 범위

건축사에서 근대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콜린스는 1750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 특징은 일정한 양식에서 벗어났다는 점과 표준적인 구성 요소가 사라졌다는 점으로 요약한다. 즉 이로써 건축의 다양성, 즉 건축가의 의도와 재량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¹² 물론 이 이후에도 각국별로 유행하는 스타일은 있었지만, 이는 건축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야마모토(山本)는 근대 건축을 정의하면서 “근대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 목적이 기념비적인 스타일 건축으로부터 (탈피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적인 건축”¹³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근대 건축’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윤인석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 건축은 개항 이후 서양문물을 수입하면서 건축 역시 서양의 영향을 받는 시기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전통 기법에 의해서 전통 건축을 축조한 것은 근대 건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⁴ 그러한 것은 근현대에 지어지기는 했지만 전통 건축에 포

11 Denise L. Lawrence & Setha M. Low, “The Built Environment and Spatial Form,” p. 486.

12 피터 콜린스,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13~14쪽.

13 山本祐弘, 『わかりやすい建築講座3-近代建築史』, 彰国社, 1972, 19~20쪽.

14 윤인석, 「일본의 근대건축」, 『건축운동 4: 한국근대건축개론』, 대진사, 1992, 297쪽.

함시키고 있으며, 건축기법, 축조법 등 서양의 사고를 기본으로 해서 지어진 것을 총망라해 ‘근대 건축’으로 본다. 근대 건축이 시작된 시기라고 해도 대부분의 일반 가옥은 전통적인 형태와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¹⁵ 근대는 근대 건축이 전통 건축을 대체한 시기라기보다는 일본의 근대 건축물이 경관에 나타난 시기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둘째, 개항 초기 서양인이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지은 건축물은 외국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근대 건축 시대를 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시기나 양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근대 건축이 일본의 지형에 나타난 것은 개항 이후부터 1945년 패전까지로 일본사에서 근대사로 보는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¹⁶ 고유의 전통적 건축물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양식으로서 서양식 건축물은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정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표상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러한 근대 건축이 정부의 주도하에서 지어지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도시계획도 그러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일본 근대화의 양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근대식 건축물이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 식민모국으로서 일본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일본 초기 근대 건축의 시대적 특징과 그 시대별로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한 분석과 건립 경위, 그리고 건축가에 대해 분석한다. 또 지역적으로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항 초기, 일본에서 근대 건축은 주로 개항장과 외국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활발

15 이는 일본의 전통 목조가옥인 마치야(町家)의 사례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에도시대에 형식이 완성된 마치야는 현대적 가옥이 보급되기 이전 시기, 즉 전후 이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건축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마치야는 메이지시대에서 쇼와 초기 시대에 지어졌다. 그러나 마치야는 전통 가옥으로 분류되며 근대 건축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김효진, 「1990년대 이후 교마치야 재생운동의 명암: 교토 니시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3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0을 참조하라.

16 1945년 이후의 건축물은 현대 건축으로 분류한다.

하게 건축되었으나 점차 외국인의 거주제한이 사라지고 근대화의 필요성이 신정부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수도인 도쿄에까지 근대 건축이 진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과 서양이 혼합되는 시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도쿄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신정부의 엘리트층에게 도쿄는 문명개화의 시험장이자 무대였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자료 대부분이 도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이유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근대건축사에 관한 기존 연구와 근대 생활상에 대한 수필 등 문헌자료에 의존했지만 그와 더불어 그 당시의 사진이나 풍속화를 참조했다.

3. 일본의 초기 근대 건축: 변모의 양상

제2차 대전 이후, 간신히 공습을 모면한 사람들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일이 자주 있었다. 행운이었음에 틀림없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집도 타버렸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타버렸더라면 좀 더 밝고 근대적인 집으로 다시 지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에도시대의 조닌(町人)들도 골목 입구의 판자문이 철거되고, 나아가서는 골목 전체가 문명개화와 더불어 밝은 길로 바뀌었을 때 같은 생각을 품었던 것은 아닐까?¹⁷

개항 이후 도쿄에 세워진 근대 건축을 분석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도쿄가 안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일본 건축물과 가옥의 특징이 그것이다. 에도시대부터 도쿄는 화재와 지진 등 대형 재해가 빈발하는 도시였다. 일본 전통 건축물은 대개 나무로 지어졌고 인구에 비해 거주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주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골목길을 사이에

17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도쿄이야기』, 이산, 1997, 30쪽.

두고 나가야(長屋)¹⁸가 밀집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대형 화재로 번졌다. 따라서 평범한 일본인에게 화재로 집을 잃는다는 것은 일생 중 몇 번씩 겪는 일이었고 그에 따른 대피술도 발달해 있었다. 한편, 나무라는 건축재는 다루기 쉽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기 때문에 재건이 손쉽고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23년 간토대지진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부의 근대 건축 추진에 대한 반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재해를 입은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공자인 정부와 건축가의 의도가 좀 더 수월하게 관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근대 건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재해로 인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면 새로운 양식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화재가 빈발했다는 점은 일반인이 전통 건축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돌이나 벽돌로 지어져 불에 쉽게 타지 않는 근대 건축을 떠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을 것이다.¹⁹ 앞의 인용문은 비록 근대 건축이 등장하기 시작한 1860년대에서 80년 이상 지난 후의 체험담이지만, 이 점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근대 초기 건축을 시기상 세 시기로 분류하고, 그 시기별로 대표적인 건축물과 건축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서 유추되는 당시 일본의 분위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18 가로로 긴 목조건축물로 보통 그것을 여러 칸으로 나누어 한 칸에 한 가구가 거주했다.

19 “이토록 길게 늘어선 주택가 속에서 남아 있는 에도의 뒷골목 모습을 찾아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화재가 너무나 자주 발생했으며, 더구나 비좁은 골목을 부수고 좀 더 넓은 도로와 집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도쿄이야기』, 30쪽.

1) 보고 베끼기: 의양풍(擬洋風) 건축(1860~1870년대)

후지모리(藤森)에 따르면, 서양 건축이 일본에 상륙한 초기에 지어진 근대 건축 양식은 두 종류로 나뉜다. 우선, 막부와 유력한 번에 의해서 세워진 양식(洋式) 공장 스타일이다. 이 건물들은 일본 전통 건축과는 달리 돌이나 벽돌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는 개항으로 개방된 항구에 상륙한 외국 상인들이 만들었던 상점과 주택으로, 이들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던 서구의 상인들이 여타 아시아지역에서 자신들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던 양식인 ‘콜로니얼 건축’의 양식을 띠고 있었다. 상인들이 지었기 때문에 간편함을 추구한 것이 특징으로, 주로 베란다가 둘러져 있는 목조의 양풍 건축이었기 때문에 ‘베란다 콜로니얼 건축’이라고 불렸다.

양식 공장 스타일은 지나치게 검소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스타일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베란다 콜로니얼 양식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의 맹렬한 더위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실제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양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²⁰ 무엇보다도 이들은 서구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일본의 ‘근대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건축물들은 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정된 지역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일본인은 이를 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개항을 전후한 근대 초기에 도쿄에는 근대식 건축물이 없었다. 이는 수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한 막부의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막부는 외부의 압력 이외에도 사회체제 내부의 모순, 지배층의 내분, 불안을 느끼는 하층민의 ‘세상바꾸기’(世直し) 반란으로 인해 권력의 누수현상이 현저한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해지자 막부는 일단 이를 수용하여 개항을 하는 대신,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거주를 통제하는 동시에 제철소나 조선소 등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20 藤森昭信, 「序・文明開化東京の西洋館案内」, 藤森昭信・内田詳士・時野谷茂・初田亨, 『復元鹿鳴館・ニコライ堂・第一国立銀行』, ユーシープランニング, 1995, 7~8쪽.

공장 등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개항장인 몇몇 항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만 거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일본 서부에 기반을 둔 반막부파는 불평등 조약을 막부의 실책으로 주장하면서 천황 복위를 주장한다. 이들은 이미 막부가 공식적으로 서구 세력과 협상하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서구 세력과 제휴하고 공장과 학교 등을 세웠다.

흥미로운 것은 서구의 식민주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남부 츠와나를 연구한 인류학자인 코마로프와 코마로프(J. Comaroff & J. Comaroff)는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선교관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수도가 갖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배층이 외부 세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한편, 외부 세력이 끼칠 영향을 고려해 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열심이었던 양상은 일본 근대의 식민주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서구 열강이 수도에 진출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을 통해, 공간의 정치학이 이질적인 세력 간의 조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배 계층 내의 다른 분파의 경우 좀 더 직접적으로 외부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은 반막부파가 서구 세력과 제휴한 사실과 평행을 이룬다.²¹ 또한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제가 확립되면서 반막부파가 권력을 잡아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구와 제휴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발달한 서구의 기술과 문물을 수입한다. 이러한 경험이 서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밀려드는 서구 세력에 대해 일본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었다. 기존의 지배층은 서구 세력을 막는 동시에 전통적인 막부 체제를 재강화한다는

21 Jean Comaroff & John L. Comaroff,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vol.1-Christianity, Colonialism, and Consciousness in South Af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 200~201, 240.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시도했고, 지배층 내의 다른 분파인 반막 부파는 이전부터 지속되는 일본의 전통으로 천황제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존립을 위해서는 한층 더 급진적인 서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일본에서 ‘서구’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가? 이는 의양풍(擬洋風) 건축 양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의양풍 건축은 서구의 건축물을 보거나 간단히 배운 일본 전통 건축가들이 지은, 서구식 건축물을 흉내낸 건물을 의미한다.²² 시기적으로 의양풍 건축은 개항 이전에도 외국과 교류를 한 몇몇 지역에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메이지유신을 전후한 시기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양식 건축이 도쿄 주변에 나타나게 된 것은 도쿄 주변의 쓰키지(築地)에 외국인 거류지 건설이 확정되면서부터다. 기존의 개항장을 비롯하여 새롭게 개설된 거류지를 중심으로 서양 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양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 전통건축 장인(職人)들이 그 수요를 채우면서 서양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목수로, 건축 기법과 스타일은 보고 흉내낼 수 있었지만 돌이나 벽돌 등 서양 건축의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양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에게 자극 받아 서양 건축을 배우고, 그 스타일을 모방하여 나무를 재료로 해서 일본인 목수들이 창안한 스타일이 의양풍 건축이다. 이후 이들은 각지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서양 건축을 흉내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다.

1872년 완성된 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그림 1)은 이전과는 달리 서양인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일본인이 설계한 최초의 양식 건축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 서양의 대담한 절충 양식인 화양절충(和洋折衷)을 취했다는 점에서 일본 근대 건축사상 최초의 시도로 간주된다. 이 건축물을 설계, 시공한 시미즈 기스케(清水喜助)는 지방 출신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에도에

22 이 용어는 정확히 서양식 건축물은 아니지만 서양 건축의 분위기가 나는 건축물을 지칭할 때 폭넓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1〉 제일국립은행 건립 당시의 사진

출처: https://www.kahaku.go.jp/exhibitions/vm/past_permanent/rikou/Field_8/Detail_803.html

올라와 제1대의 뒤를 이어 2대 시미즈 기스케가 되었다. 개항 이후 그는 요코하마로 진출하여 그 당시 요코하마에서 서양 건축의 대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던 브리젠스(Richard P. Bridgens)와 함께 공사를 하는 등 경력을 쌓아 요코하마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수로 자리를 굳혔다. 이때 서양식의 건물 디자인과 건축 기술을 익힌 그에게 막부는 쓰키지 외국인 거류지에 세운 호텔관의 공사를 맡겼으며, 메이지유신 후에는 미쓰이(三井) 가문의 사설 은행의 건축을 맡게 되었다.

시미즈의 경력은 이 당시 의양풍 건축을 담당했던 일본 전통 장인들의 일반적인 경력을 대표한다. 전통 기술을 익히고 이미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은 서양식 건축의 수요가 늘어나자 전통 기술에 기반하여 서양식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데 치중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인의 서양 문물에 대한 수용 태도도 알 수 있다.

이 건축의 양식을 살펴보면 이들의 수용 태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에도 시대에 가장 번영했던 니혼바시(日本橋)의 정중앙에 세운 제일국립은행은 전통 건축물과는 달리 거대한 규모의 목조 5층 건물이었다. 기와와

나무로 지은 1층이나 2층 건물들 사이에 갑자기 출현한 5층 건물은 마치 옛 일본 성의 천수각(天守閣)²³처럼 보였다고 한다. 규모뿐만 아니라 건물의 양식 자체가 천수각을 연상시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서양식 건축물과는 달리 각 단마다 청동기와를 씌운 지붕을 만들고 이를 겹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가장 꼭대기에는 망루가 달려 있는 이러한 구성은 천수각의 구성과 동일하다.

그러나 건물 가까이에서 보면 1, 2층에 베란다가 달려 있고 망루가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한편, 베란다에 옷칠한 장식품이 붙어 있는 등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천수각의 구성이지만 서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이 건물은 아직 서양식 건축물이 등장하지 않은 메이지유신 초기 도쿄 중심가의 전통적 거리 풍경과도 잘 어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일국립은행 건물은 다섯 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는 등, 시공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변경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건물의 형태에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설계에서는 처마 밑으로는 서양식이지만 기와를 씌운 지붕과 귀와(鬼瓦)를 사용하는 등 일본적 색깔이 짙었던 것이, 중간 과정에서는 망루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등 서양식에 가까워졌다가, 최종 설계에서는 다시 일본식에 가까워졌다. 건물 한복판에 전통적인 성곽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망루를 세워 일본식이라는 느낌을 주는 한편, 양 옆에는 서양식의 탑이 붙어 있었다.²⁴

이 건물이 천수각을 연상시켰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건물이 단지 양식상 일본식이었다는 것 외에도 에도시대에 천수각이 정치 권력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이 건물이 전통적인 지위 상징(status symbol)의 양식을 받아들였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일본식 스타일 중에서도 성곽이나 사원 등, 권력과 지위를 의미하는 양식이 쓰였다는

23 성곽 중심에 있는 가장 큰 망루로 전쟁 시에는 전망대, 사령탑, 또는 최후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평상 시에는 영주의 권위를 상징했다.

24 이상의 내용은 初田亨, 『和洋折衷の第一国立銀行』, 藤森昭信・内田詳士・時野谷茂・初田亨, 『復元鹿鳴館・ニコライ堂・第一国立銀行』, ユーシープランニング, 1995에 바탕하고 있다.

점을 통해 건축가와 시공자가 그러한 부분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에도시대에 망루는 정치적인 지배 계층에게만 허용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상인의 사설 은행²⁵에 망루를 달았다는 점은 기존의 사회계층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²⁶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화양절충식의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는 일본식에 더 가까웠다.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 들어선 이 건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또한 지식인 계층을 대변하는 신문들도 이 건물에 찬사를 보냈다.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 건물을 황궁으로 착각해서 돈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이 건물은 도쿄의 명소 중 하나로 풍속화나 판화에 묘사되는 등 인기를 얻었다. 또 이 건물은 일본 각지에 지어진 의양풍 건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물을 평범한 일본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은 의양풍 건축이라는 양식이 화양절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요소가 더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⁷

1873년 메이지 정부는 이 건물을 제일국립은행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 건물이 서양식이라기보다는 일본식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파리나 런던에도 이런 식의 건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믿음은 1871년부터 1873년에 걸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막상 유럽에 간 일본의

25 제일국립은행은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미쓰이 가의 사설 은행이었다. 민간 운영이지만 이 당시 '국립은행법'(国立銀行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므로 국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26 상인이 정치적 지배계층의 상징을 사용하는 등, 전통적 사회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하즈다(初田亨)의 해석을 예로 들면서 우치다(内田)는 이 시기에 근대 이전의 전통적 건축물(성곽 등)을 해체,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内田青蔵, 「“洋風”から“和洋併存”そして“和洋折衷”への展開の過程: 日本近代初期における上流層の住宅様式の成立過程にみる国家的住宅様式の誕生に関する一試論」,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3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13쪽.

27 이 외에도 의양풍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는 1868년 지어진 외국인 전용 호텔 쓰키지 호텔판이 있다. 이 건물은 수도권에 지은 최초의 의양풍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 설계는 브리젠스(Bridgens)가 했지만 시미즈(清水)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는 점에서 유명하다. 이 건물도 천수각을 연상하게 하는 담이 있고 전체 분위기는 일본적 건축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일본 가옥보다 높게 지어졌고 창틀이 서양식이라는 점, 그리고 베란다가 있었다는 점과 담 꼭대기에 담 모양의 풍향계가 달려 있었다는 점 이외에는 서양적 요소는 없었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서양식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이들은 서구에 뒤지지 않는 일본을 보여주기 위해 수도인 도쿄를 본격적인 서양식 건축으로 장식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를 실제 건축으로 실현시킨 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축 재료였다. 이 건물들은 대목수가 지은 목조건물이었기 때문에 도쿄에서 빈발했던 대형 화재의 피해를 직접 입었고, 엘리트 계층은 이러한 사실을 서구에 대한 수도 도쿄의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이유들이 결합하여 일본 정부는 정부의 공공 건축물을 담당할 건축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칠 서구의 건축가들을 교수로 초빙한다.

2) 중간단계: 긴자 렌가가이(銀座 煉瓦街)와 토마스 워터스(Thomas J. Waters)

앞에서 살펴본 의양풍 건축과 뒤에서 다룰 외국인에 의한 건축의 중간 단계로 긴자 렌가가이 건축을 들 수 있다. 이는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시도한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이었다. 원래 에도시대에 변화했던 니혼바시에 비해 긴자는 상대적으로 소상인의 거리였다. 그러나 1872년 발생한 대화재를 기점으로 메이지 정부는 도쿄 전체를 불에 타지 않는 서구식 건물로 바꾸겠다는 방침 아래 화재로 인한 폐허 위에 서구식 거리(street)를 건설하려고 했고, 워터스에게 긴자 거리의 설계를 맡겼다.

워터스는 영국인으로 동아시아의 홍콩, 상하이, 나가사키 등의 외국인 거류지와 식민지에서 활동한 건축 기술자였다. 그 당시 식민지 개척 말기였던 영국은 동아시아에 진출하려 했고, 워터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수도개발 사업, 도로 개발 등 많은 식민지 개척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²⁸ 그는 막부 말기에 일본 서부에 도착하여 서양식 공장과 베란다 콜로니얼 건축 양쪽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기반으로 긴자 렌가가이의 도시계획 전반을 관장하게 되었다. 긴자 렌가가이 건설 이후, 워터스는 일본을 떠나 여러 곳

28 윤인석, 「일본의 근대건축」, 302쪽.

을 다니면서 건축업에 종사했고 미국 콜로라도 광산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²⁹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동아시아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개혁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다. 19세기 중반 아시아로 건너와 활동한 서구인들이 대체로 그러했지만 그의 건축 기술 수준이나 디자인으로 미루어볼 때 영국에서도 그리 높은 계층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이지 정부는 워터스에게 벽돌과 돌을 사용한 서구식 거리를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완전히 새로운 양식의 도시 계획이 실행되었지만, 메이지 정부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어떠한 논쟁도 계획도 없었다. 이 계획은 관료 몇 명만이 발의하여 화재 후 3일 만에 결정된 것이었다. 그들은 워터스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회사를 설립하고 바로 건설을 시작하도록 했다.

긴자 렌가가이는 일본 최초로 대로를 중심으로 차도와 인도를 분리했으며 가로수를 심고 가스등을 세웠다. 상점 입구에 붙은 아케이드가 비를 막을 수 있게 설계했고, 인도는 벽돌이었으며 차도는 흙을 포장한 후 중심에 마차 철도의 궤도를 설치했다.³⁰ 대로변의 상점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었으며 아케이드는 부채꼴의 벽돌로 만든 원주로 지탱되었다. 이 원주들은 길을 따라 나란히 세워졌는데 붉은 벽돌 위에 서양 회칠을 하여 백색 계열로 통일했다. 전체 공사는 1877년에 완료되었다. 거리 모습은 19세기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볼 수 있었던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모습 그대로였다.³¹ (그림 2 참조)

정부 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긴자 렌가가이의 건설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과는 달리, 설계와 공사를 맡았던 워터스와 긴자에 살고 있던 일본인

29 藤森照信, 「銀座煉瓦街計画」, 『復元文明開化の銀座煉瓦街』, ユーシープランニング, 1994, 8쪽.

30 현대 일본 상점가의 패턴 — 차도와 인도 분리, 가로등, 가로수, 아케이드로 구성되는 — 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熊田英企, 「街並み・建物・商店 明治10年代末の銀座通り」, 『復元文明開化の銀座煉瓦街』, ユーシープランニング, 1994, 10~14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1 유럽인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기둥을 가장 중요한 장식요소로 보았고, 거리의 중심가에는 이 열주가 늘어선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봤을 때 영국인 워터스가 설계한 긴자 렌가가이는 서양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았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긴자 렌가가이 초기의 모습

출처: http://showcase.meijitaisho.net/entry/ginza_rengagai_01.php

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체를 불연(不然)화하려고 했지만, 전통적인 목조건물이 섞여 있었던 것은 워터스의 의도대로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건축물 입주를 둘러싼 메이지 정부와 원 주민들 간의 갈등 또한 일본의 서구화를 둘러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렌가가이 완성 후 약 5~6년간 상점들은 들어왔지만 뒷골목의 가옥들은 거의 빈 채로 있었다고 한다.³² 주민들은 갑자기 붉은 벽돌로 만든 유럽식 가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불편해 했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메이지 정부에도 반감이 많았다. 재해를 입지 않았던 나머지 긴자 지역도 철거해야 한다고 방침이 정해졌을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도 이러한 반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1879년 정부는 빈집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건물에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

32 藤森照信, 「銀座煉瓦街計画」, 8쪽.



〈그림 3〉 긴자 렌가가이의 변화한 모습

출처: <http://www.ginza.jp/history>

의 계획대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폭적인 개축, 증축이 있었으며 아케이드의 기둥 사이를 막아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건물 뒤편에는 목조 부엌과 변소 등을 신축하기도 했다.³³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은 일본의 기후를 고려하지 않았던 워터스의 설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일본인에게 단단한 벽돌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생소했다.³⁴ (그림 3 참조)

한편 긴자 렌가가이의 모습은 장안의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문명개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그곳을 구경하고 싶어 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문명개화를 상징하는 물품을 파는 상점들—시계점, 양품점, 면직물점 등—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상점들은 서양식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임의대로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 일본적 요소를 도입했다. 서구식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통 방식인 좌식 판매가 일반적이었고 건물의 앞면에 상점을 상징하는 노렌(のれん)을 건다든

33 熊田英企, 「街並み・建物・商店 明治10年代末の銀座通り」, 13쪽

34 더 나아가 외국인도 ‘미국의 아류’라는 식으로 긴자 렌가가이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일본인 역시 풍속화 등의 소재로 즐겨 삼았지만 실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소수였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도쿄이야기』, 82~83쪽을 참조하라.

지, 일본식 간판을 붙이거나 건물 외부에 대나무로 만든 전통 빗물 보호대를 설치하는 등 일본적 요소를 추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져서 정부가 의도했던 서양식 거리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메이지시대 말기 명실상부하게 일본의 근대를 대표하는 상점가이자 1900년대 이후 동경의 대상이던 긴자 렌가가이는 간토대지진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그 시대의 흔적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때, 이곳은 평범한 일본인에게 ‘긴자 산책’이라는 도락을 제공했던,³⁵ 한 시대를 특징짓는 변화가였다. 긴자 렌가가이는 텅 빈 폐허 위에 근대적 도시를 이식하고자 했던 첫 사업으로 근대화 초기 일본의 지배 엘리트와 일본인 간의 어긋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3) 외국인에 의한 건축: 조지아 콘더(Josiah Conder)의 시대

개항 이후 등장한 의양풍 건축이 피상적인 서구의 이미지를 투사한 것이라면, 이후의 건축은 좀 더 완전히 서구적인 것, 즉 서구와 다를 바 없는 ‘진정한 근대화’를 향한 일본 정부의 목적을 질게 반영하고 있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통해 유럽을 순방하고 온 관료 엘리트들은 귀국 후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책을 시행해나갔다. 이들은 유럽에서 보고 체험한 것을 통해 그동안 일본에서 서양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서양식도 일본식도 아닌 뒤죽박죽이었다고 비판하고, 서양에 뒤지지 않는, 서양과 동등한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이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탈아론(脱亜論)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와 형제 관계를 맺기는 어렵고 이미 서양화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일본이 아시아를 벗어나는 게 상책이며, 아시아를 탈피해서 서양나라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아시아에서 서양의 역할을 해야 한다”³⁶는 후쿠자와의 주장은 이후 일본

35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도쿄이야기』, 83쪽.

36 김용덕,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지식산업사, 1991, 44쪽.

이 급속하게 서구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 관료들은 건축이 서양인들이 일본에 왔을 때 일본의 근대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한다고 보는 동시에,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근대적인 공적 제도의 공간으로서 서양 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기존의 의양풍 건축을 서구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한편, 좀 더 튼튼하고 근대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외국인 건축 기술자와 일본인 건축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럽 각국에 훌륭한 건축가들을 일본에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본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아 콘더도 일본 정부가 영국에 건축가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일본에 오게 된다. 이 당시 일본 정부는 공공 건물 건축을 전담하는 부서인 영선국, 그리고 건축가를 길러내기 위한 공립 공부(工部)대학교 조가(造家)학과³⁷를 개설한 상태였으나 그 이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외국의 정통 건축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에 도착한 콘더에게 대규모의 공공 건물 건축과 교육을 통해 서양식 건축 그 자체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콘더는 이후 약 40여년간 일본에서 공공 건물 건축과 지배층의 사저를 건축했고 많은 일본인 제자를 길러내어 일본 건축의 시초이자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있다.³⁸ 그러나 그의 건축 또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여러 요소로 인해 현재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기묘한 점이 드러난다.

콘더는 1852년생의 런던 토박이로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은행원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상업학교에 들어갔으나 졸업 후에 진로를 바꿔 숙부인 런던대학 교수 토마스 R. 스미스(Thomas Roger Smith)의 사무소에 들어가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4년간 실습 위주의 건축 교육을 받는 한편, 런던대학과 미술학교에서 건축을 배웠다. 대

37 건축학과의 옛 이름. 그 당시 일본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음을 알 수 있다.

38 그가 남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河東義之, 『ジョサイア・コンドル作品集』 1-3, 中央公論美術出版, 1980에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학교와 미술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그 당시 빅토리아 고딕 건축가로서 유명했던 윌리엄 버지스(William Burges)의 조수가 되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정통적인 건축을 익힐 수 있었던 그는 1876년 영국왕립건축가 협회가 주최한 설계 공모에 응모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에 주어지는 손상(Soane Medal)을 수상했다. 이 수상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그를 초청하게 되었다. 1878년 일본에 도착한 콘더는 일본인 제자들에게 신뢰받았고 메이지 정부도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콘더의 건축 성향은 그가 건축을 배웠던 당시 영국의 빅토리아 고딕 양식을 따른 화려한 면이 많지만 특정한 양식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서양 건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본에 왔지만 사생활에서는 일본적인 것을 애호했다고 한다. 일본 여성과 결혼했고, 일본 전통 가옥에서 살았으며 일본 전통 화가에게 그림을 배우고 일본식 호(교에이, 暁英)를 받았을 정도로 일본을 사랑했다. 콘더의 이러한 성향은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소위 ‘정통적’인 서양식 건축과는 모순된다. 실제 그는 일본의 전통 문화의 소멸을 애석해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이를 살리고 자신의 건축에 도입하려 노력했다. 제자들에게 일본인은 일본의 것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⁹는 일화가 잘 보여주듯이 콘더는 서구화를 통한 계몽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건축은 독창적이기보다는 평범한 것으로, 실제적이고 절충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는 입지조건과 건물의 성격, 재료 등을 많이 고려하는 그의 건축 성향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 오기 전 그의 건축 경력이 실습 위주의 실용적이었던데서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지배층은 파리와 런던에서 수입한 ‘진정한’ 서양적인 것을 바라고 콘더를 초청했지만, 이는 건축가인 콘더 자신의 성향에서부터 모순을 일으키고 있었다.

로쿠메이칸(鹿鳴館)은 콘더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며 일본 근대 건축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메이지 시대 구화주의(歐化主義)⁴⁰의 정점을

39 윤인석, 「일본의 근대건축」, 306쪽.

40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전통적인 풍습을 버리고 모든 것을 서양화해야 한다는 주의로 서양에 대한 극단적인 모방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림 4〉 로쿠메이칸. 정원의 일본식 석등이 눈에 띈다

출처: http://www.kaikou.city.yokohama.jp/document/picture/10_05.html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4) 근대사에서 1880~1890년대(페이지 20~30년대)를 로쿠메이칸 시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 건축물이 건립된 경위와 용도가 그 시대의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개화의 상징으로서 로쿠메이칸은 정부의 영빈관으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정부가 초청한 서양의 외교관 부처와 재일(在日) 유력자들이 이곳에 모여 개최한 야간 연회(夜會)였다. 상들리에 아래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이 프랑스나 영국에서 수입한 서양식 정장을 차려입고 춤을 추는 댄스파티는 순 서양식 가구와 악대의 연주 속에서 마치 서양의 무도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풍경이었다.

로쿠메이칸은 1883년 개관했는데, 건설의 주역은 그 당시 외무대신이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였다. 그에게 급선무는 이전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일본이 서양에 지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 중 하나가 로쿠메이칸 건축이었다.⁴¹ 일반인은 모두 잠든 밤에 열리는 이 무도회를 위해 정

41 무도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외국인과 일본인이 참석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부는 특별 열차편까지 마련해서 지원했고, 초대장은 부부 각각에게 보냈으며 모든 사람이 양장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⁴² 사교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위해 특별히 댄스 교습이 실시되는 등, 정부가 로쿠메이칸의 무도회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일본 정부의 서구와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약 개정에 실패한 이노우에가 1887년에 외무대신을 사임하면서 이 건물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개수되지 않았고 화족(華族)회관으로 사용되다가 1940년 해체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로쿠메이칸이 건축물 자체로도 모순적인 요소들의 조합이었다는 점이다. 후지모리(藤森)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로쿠메이칸의 사진을 통해 건축 양식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로쿠메이칸의 외관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아시아의 영향이다. 전체적으로는 돌로 지은 2층의 프랑스 고전주의 양식 건물인데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평범하다. 우선 정면에 베란다를 배치하고 2층에는 이슬람 건축 양식을 사용했다. 정면 중앙부를 제외하면 장식이 거의 없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이다. 지붕과 중앙부에만 프랑스식 기와를 썼고 나머지는 나무 기와를 사용했다. 2층 베란다의 기둥은 술병같이 잘록한 형태로, 그 위에 붙은 장식은 야자 잎사귀이고 기둥과 기둥을 잇는 사이는 이슬람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⁴³

이에 비해 건물 내부는 비교적 서양식으로 꾸며졌지만, 벽지는 이슬람식이었다. 정원과 대문은 기묘한 형식이었는데, 정원과 가스등은 거의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전통적인 수목을 심어 설계상의 좌우 대칭을 깨뜨리고 있다. 대문도 전통적인 일본 지배층 가옥의 대문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42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고 남편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본의 전통 관습에서 볼 때 이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도쿄이야기』, 124~126쪽.

43 藤森照信, 「序・文明開化東京の西洋館案内」, 9쪽. 현재 일본 건축계는 이 건축물에 있는 이슬람 양식에 대해 순수한 이슬람식이 아니고 인도에서 받아들인 이슬람 형식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 당시 영국에서 야자 잎사귀는 인도의 상징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콘더가 남긴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에도 인도와 이슬람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것도 그 안의 서양식 건물인 로쿠메이칸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⁴⁴

왜 서양식 건축물로 지었어야 할 로쿠메이칸에 인도와 이슬람의 영향이 나타나 있는가? 여기에는 건축가인 콘더가 지니고 있었을 오리엔탈리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콘더가 영국에서 보낸 19세기 중반에 수많은 유럽 건축에서는 인도나 극동에서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장식 요소가 사용되었다. 수많은 동양 관련 저작이 출판되는 등, 19세기 중반은 오리엔탈리즘의 황금기였다.⁴⁵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오리엔탈리즘의 중심국으로 이들에게 동양은 아랍과 이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에게 동양은 곧 아랍과 인도를 연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영국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콘더가 일본에 올 것을 결심하고 평생 일본을 애호했던 것도 그의 개인적인 성향일 뿐만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동양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콘더와 같이 동양으로 떠나려는 많은 영국인에게 동양에 대한 신비감이나 동경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의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다. 일본 정부는 정통 서양식 건축물을 원했지만 실제로 일본과 같은 동양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서양인은 동양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지닌, 결코 일본의 완전한 서구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콘더는 실제로 서양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다른 전통 사이에서 그 간극을 메우려 노력했다. 그 노력의 하나가 서양과 일본의 중간으로 간주되던 인도 양식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태도의 근간에는 동양을 하나의 거대한 단일체로 묶어버리는 서양의 오리엔탈

44 内田祥士, 『文明開化の鹿鳴館』, 『復元鹿鳴館・ニコライ堂・第一国立銀行』, ユーシープランニング, 1995, 13~15쪽에 바탕하고 있다.

45 사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오리엔탈리즘의 여러 관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유럽에는 과거의 유럽인에게서 물려받은 방대한 동양 관계의 문헌이 존재했다. 이 책에서는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개막을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기에 걸친 시기에서 잡고자 하나, 이 시기에 특기할 일은 에드가 퀴네(1803~1875)가 명명한, 소위 동양 르네상스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여러 사상가, 정치가, 예술가들에게는 중국으로부터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동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돌연히 생긴 것같이 생각되었다.”(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1991, 79쪽)

리즘이 존재한다. 이는 로쿠메이칸을 계획한 이노우에, 나아가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빗나간 것이다.

로쿠메이칸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서양 건축을 통하여 서구화된 일본을 과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콘더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의도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콘더가 보였던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콘더의 개인적인 성향에 덧붙여 우치다 요시오(内田祥士)는 이것이 메이지 정부와 콘더의 의도를 넘어서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거대한 문명개화의 흐름이 보여주는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이 관계자의 의도를 벗어나 로쿠메이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즉 로쿠메이칸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 당시 구화주의를 주창했던 일본의 내부 균열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서구화에 대한 욕망은 강렬했지만 그 내용을 숙고하지는 않았고, 국민들은 그때까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곤혹스러워 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비유립적인 요소로 가득찬 구화주의의 상징인 로쿠메이칸은 이렇게 건축가와 일본 정부 간의 간극과 모순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다. 이전의 의양풍 건축이 피상적이었다고 비판하던 일본 정부의 로쿠메이칸 건립은 결국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로쿠메이칸 건립 이후 시간이 지나도 불평등조약이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화주의는 일본의 서구화를 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구화 자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⁴⁷

한편, 일반 국민은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신문 등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한 로쿠메이칸 건립 초기의 비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

46 内田祥士, 「文明開化の鹿鳴館」, 16~7쪽.

47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도쿄이야기』, 124쪽. 로쿠메이칸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가했던 지배층 또한 동일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무도회는 성대하게 개최되었지만 춤추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대부분이었고, 일본인은 외국인에게 끌려나와 스텝만 정확하게 밟았다고 한다.

반인의 호응을 얻었다. 무도회를 개최하고 구화주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정작 서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불평등조약도 개정되지 않는 사실이 점차 널리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화 이후 일본 정부와 국민의 괴리는 결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로쿠메이칸이야말로 그 짧은 역사를 통해 괴리와 그로 인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 1900년대 이후 패전까지:

일본인 건축가의 등장과 근대 건축의 쇠퇴

콘더 이후, 그가 길러낸 일본인 건축가들이 배출되자 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콘더는 주택을 설계하는 등 여전히 작업을 계속했지만 이미 일본인 건축가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있었다. 이때 배출된 건축가들은 다쓰노 긴고(辰野金吾)를 필두로 일본인에 의한 본격적인 근대 건축 제1세대를 이룬다. 다쓰노 긴고가 지은 건축물은 도쿄역, 일본은행, 오사카시 중앙공회당(大阪市中央公会堂)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건축물들은 서양식 건축임에도 서양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건축물과도 비슷하지 않다는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규범과 엄격함이 강조되고 독창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⁸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근대 건축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 이전 시대의 서구화를 향한 열정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인 건축가가 활약한다는 것은 서구가 모방의 대상인 시기를 지나 이미 서구적인 요소가 일본인의 사고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간토대지진을 기점으로 도쿄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끝나는데, 여기서 변화의 중심은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의 필요성과 그를 뒷받침할 새로운 건축 재료의 등장이다.

48 에드워드 사이텐스터커, 『도쿄이야기』, 274~275쪽.

다. 이 당시까지 지어졌던 의양풍 건축, 외국인에 의한 건축, 일본인 건축가 1세대의 건축은 모두 지진에 취약했으며, 결국 무너져내렸다. 대지진 이후 일본 건축계는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뿐만 아니라 벽돌과 돌도 지진에 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진성 건축 재료로서 1910년대에 개발된 철골조와 철근 콘크리트의 도입을 서두른다. 이전에도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재료들이 알려져 있었지만 기존의 건축 양식이 변화한 것은 간토대지진이 주요한 계기였다.

이후 일본에서 근대 건축은 크게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와 쇼와(昭和) 전기에서 각각 발달 양상이 다르다. 우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부터 우리가 현재 ‘빌딩’으로 부르는 극도로 장식을 배제하고 특정한 건축 양식에서 벗어난 장방형의 모더니즘 건축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전 시대를 크게 묶어 근대 건축 중에서도 서양풍 건축이라고 한다면, 1923년 간토대지진을 기점으로 모더니즘 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후 일본 현대 건축의 시초이기도 하다. 한편, 이 시대는 전통가옥이나 일반인이 서구의 요소들을 실제로 받아들여 문화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는 때였다. 공공건물과는 달리 가옥이나 상점 등 개인적인 소규모 건축에 차츰 붉은 벽돌 등의 재료를 화강암과 함께 쓰기 시작하고, 서구 가옥의 장식적 요소를 다양하게 부가해 ‘동화 속의 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 당시 유곽은 공장 속의 성을 연상시키면서도 지붕 아래는 일본식 느낌이 나도록 설계되었다.(그림 5 참조) 유곽이 그 당시 하층민이 다니던 곳을 생각하면 이러한 감각이 어느새 국민 전반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건축에 대한 감각이 변화하여 과거의 전통과는 다른 혼성(hybrid)적인 감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건축 분야에서는 이 시기에 일본적인 감각이 서양의 감각과 섞여 제3의 감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국가 전체의 근대화와 관련하여 일본 국민이 근대적 주체로 형성된 시기를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당시 일본이 구가하던 번영과 서구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에서의 탈피는 이



〈그림 5〉 오사카 지역에 남아 있는 근대 유곽 건축

출처: 銀行から高級遊郭まで! 大阪府大阪市にあるレトロ建築のカフェ&レストラン(<http://news.mynavi.jp/articles/2014/01/29/retrocafe/>), 2014년 1월 29일 기사. (검색일: 2016. 6. 25)

리한 자신감을 뒷받침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국호텔 건립을 둘러싼 에피소드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이전 시기와 완전히 달라진 일본의 서구에 대한 태도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숙박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국호텔을 짓기로 결정하고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Frank Lloyd Wright)를 초청했다. 1915년 공사가 시작되어 1923년 완공된 이 호텔은 그 건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인 인부들과의 갈등으로, 정부에서도 외국인에게 공사를 맡긴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인해 점차 지원이 줄어들어 1923년 라이트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 일본을 떠났다.⁴⁹

라이트의 에피소드는 이어지는 쇼와시대, 즉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의 서구에 대한 태도가 어떤 기반 위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쇼와 시기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나타났던 모더니즘 건축이 점차 증가하는 한편, 서양식 건축에 일본의 요소를 부가한 화풍(和風) 건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놀라운 변화는 이전까지의 일본 근대

49 에드워드 사이텐스티커, 『도쿄이야기』, 317~318쪽.

건축이 서양의 근대 건축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때 화풍 건축은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을 공부하면서 현대 건축의 적용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화풍 건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고건축을 모방해서 짓는 것과, 국제주의와 모더니즘의 건축을 습득한 후, 박스 형태 위에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고건축 지붕을 올리는 제관(帝冠)주의 건축이 그것이다.⁵⁰

이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화하면서 서구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을 표방하는 대동아공영권 이념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일본은 서구와 동일한 발전 단계에 있는 한편, 서구에 대항하여 동양을 보호하는 만형 역할을 하며 일본적인 요소야말로 서구의 나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근대 시기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일본은 서구와의 동일시를 거쳐 일본 자체만의 전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통으로서 일본은 동양에서 최상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독립을 부르짖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에 복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대동아공영론은 그 당시 일본의 극우에서 극좌까지 전 사상계를 사로잡은 난국타개책으로 여겨 일본의 지도적 위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록 이에 찬동한 모든 사람이 제국주의화와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의도하고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⁵¹

5. 나가며

하나의 나라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익숙했던 존재 방식으로부터 새

50 윤인석, 「일본의 근대건축」, 304~305쪽.

51 좀 더 자세한 논의는 榮澤幸二, 『「大東亞共榮圈」の思想』, 講談社学術文庫, 1997를 참조하라.

로운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 제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과 함께 보통 사람들의 기분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는 좋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야 시대는 아래에서부터 변한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기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세상 풍속의 변화다. 입을 것, 몸에 두를 것, 먹을 것, 주거, 거리 모습, 유행, 노래 등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영역의 변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문명개화라는 것은 그렇게 친근한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 없이는 식산흥업도 부국강병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⁵²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개항 이후 근대화 초기, 일본인의 의식에 서양식 건축—곧 일본의 근대 건축—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양상을 통해 일본이 시기별로 첨예하게 고민하던 모순을 추적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근대 초기, 지속적으로 극심한 내부적 혼란을 겪었다. 지배 엘리트들은 서구에 뒤쳐진 일본을 바꾸려 했고,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했다. 이러한 모순이 누적되어 막상 서구와 대등한 위치에 왔다고 인식하게 되자, 일본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동아시아의 전통을 부르짖지만, 이미 일본은 서구화의 영향을 통해 과거의 전통적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근대적인 국가가 되어 있었다.

건축 분야는 이러한 과정이 가져왔던 혼란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을 것이다. 일본인들조차도 과거 자신들의 건축 양식과 습관을 쉽게 버리

52 藤森照信, 「はじめに」, 1995, 6쪽.

지 않았고 대다수의 일본인이 근대 건축을 경험하면서도 주거공간의 기본적인 형태를 바꾸지 않았던 것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공공건물은 근대식 건축을 받아들였지만 사적인 공간이나 주택은 여전히 일본의 전통적인 양식을 유지했다. 지배층의 서양식 가옥도 손님 접대 공간만 양식이었고, 실제 생활은 그 뒤 일본식 가옥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근대 건축이 개항 이후 일본에서 권위의 상징으로 기능했던 것은 서양이라는 압도적 존재를 둘러싼 일본의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단지 일본이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식민모국이었던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적어도 건축 분야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현대 일본의 원형이 확립되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는 완전한 서구화는 아니었고 근대화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다는 점이 일본 근대 경험의 특징일 것이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순수한, 혹은 전통적인 일본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찾아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성(hybrid)의 감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근대 건축이 한국 건축에 준 영향도 새롭게 고찰할 수 있다. 1900년대부터 일본 건축이 조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한일 병합 이후 공공 건축과 가옥에 일본인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건축된 건물들이 일본에서는 서양 스타일을 잘 따라한 일본인 건축가 제1세대가 지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들은 일본에서 이미 건축되었던 건물을 모방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스타일이나 형식상으로 보면 이들은 서양식 건축이지 일본식 건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건축물들은 일반적으로 ‘왜색 건축물’로 간주된다. 한국인이 지은 근대 건축이 희귀한 상황에서 근대 건축은 곧 일본식을 의미했고 여전히 일제의 잔재로 평가될 때가 많다.⁵³ 물론 이러한 건축물들은

53 정운현의 『서울시내 일제유산답사기』(한울, 1995)와 기록문화회의 『부끄러운 문화답사기』(실천문학

일본인이 서양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라 만든 것으로 일본인이 건축한 것은 틀림없으나, 건축 양식 자체는 일본이 식민모국으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식민지 시기 조선에 끼친 일본의 영향을 논하기 이전에 일본 자체가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혼성적인 식민모국이었고, 서구화의 영향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모국으로서 일본이 행한 많은 억압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사, 1998)는 이러한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